

배우자 없으면 치매 위험 2.9배 높아... 이웃과 소통하며 운동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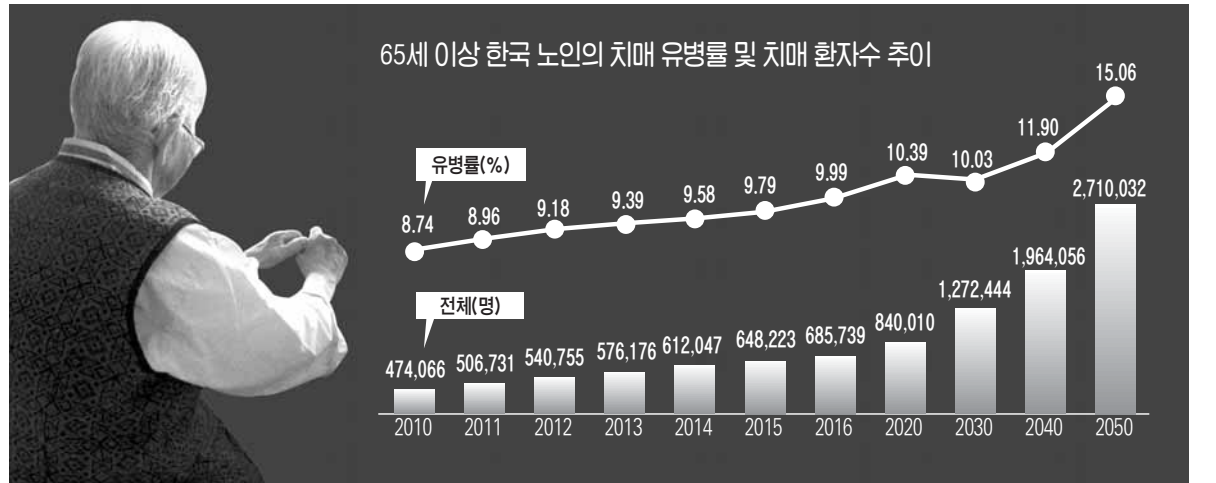


치매노인이 광주의 한 치매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보호를 받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복지부, 치매 환자 조사... 여성이 남성보다 2.5배 ↑
2050년엔 노인 6.6명 중 한명 꼴... 조기검진 중요

배우자가 없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서울대병원에 의뢰해 65세 이상 노인 6008명을 상대로 실시한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한 결과, 사별·이혼·별거 등으로 배우자가 없을 때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아졌다. 치매 위험은 과거 머리 부위를 다쳤을 경우 3.8배, 우울증을 앓는 경우에도 2.7배 높았다. 반면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치매 위험을 3분의 1가량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18%로 나타나 54만1000여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남성은 15만6000여명, 여성은 38만5000여명이다. 2008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치매 유병률은 8.40%였고, 당시 전망된 2012년 치매 유병률은 9.08%(52만1516명)였다. 2008년에 예측한 것보다 치매환자가 1~2년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치매 환자가 200만 명을 넘어서는 시기는 2043년에서 2041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또 2050년까지 매년 평균 환자 4만5900명이 발생할 것이란 2008년 예상과 달리 매년 평균 5만 7600명이 발생해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6.6명 중 한명꼴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치매 시계 속도가 빨라진 것은 급속하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05년 23만3288명에서 2010년 36만6609명으로 5년 새 57%나 늘어났을 정도다.



이 같은 실정임에도 치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치매 인식도 조사에서 '치매는 100명 중 한 명꼴로 걸린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실제 치매 유병률은 11명 중의 한 명꼴인데도 치매를 남의 일로 여기는 이가 많다는 얘기다. '치매는 치료해도 안 낫는다'고 대답한 이들도 절반을 넘었다. 치매는 조기에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게 전체 치매 환자의 10%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10명 중 9명(89%)은 치매

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치매 위험도는 여성이 남성 노인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치매 특별등급'을 내년에 신설하고, 치매 상담콜센터를 오는 10월 개통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주로 신체활동 장애를 평가하고 있는데, 기존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에서도 인지기능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치매를 예방하려면 조기 검진과 함께 개인들도 혼자 사는 것보다 이웃과 소통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 검진 문항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치매 환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도 기존 53점에서 51점으로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치매환자 10명 중 4명 독거노인

해마다 급증하지만 정부·지자체 실질적 지원정책 부족

광주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매노인 10명 중 4명은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매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6월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1만2400명으로 첫 치매 유병률 전국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만명보다 24% 늘어났다. 같은 기간 노인 인구가 11만8000명(2008년)에서 13만6000명(지난해)으로 15.3%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2020년엔 1만8300명, 2025년엔 2만3800명, 2050년엔 5만4800명이 치매를 앓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치매노인 10명 중 4명은 보호자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양동원 교수 팀이 2005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국 병원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 2388명을 분석한 결과, 41.4%인 988명이 부양자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치매 급증이 발병에 불로 떨어졌지만 정부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치매환자 관리대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치매노인 1만2400명 중 진료를 받은 환자는 56%인 6944명으로 추정되지만 44%인 5456명은 치료를 받았는지 등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에는 치매 관리 전문인력과 전문병동을 갖춘 치매거점병원도 없다. 치매노인 수가 1만명도 안 되는 대전·충북·인천·대구 등의 경우 자

치단체와 지역 병원이 합심해 거점병원을 지정받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치매는 중증으로 진행할수록 의료비 및 부대 비용이 늘어나 경증일 때보다 중증일 때 약 9배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또 각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가족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고령화 원인 치매 환자 급증

5년간 3배 증가... 진료비는 5배

치매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최근 5년동안 거의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공단의 2006~2011년 치매(질병코드 F00~03, G30) 진료 기록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06년 10만5000명에서 2011년 31만2천명으로 급증했다. 해마다 평균 24.3% 늘어나 5년 만에 2.96배가 된 셈이다. 관련 진료비도 같은 기간에 2051억원에서 4.9배인 9994억원으로 불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 수와 관련 진료비는 각각 3.1배, 5배로 증가했다. 노인 환자 중에서도 90세 이상의 환자·진료비가 각각 4.8배, 8.4배로 특히 크게 늘었고, 85~89세도 4.15배, 7.31배로 늘었다. 의료기관별로는 2011년 기준 전체 치매 진료비 중 74.7%가 요양원에서 지출됐다. 치매 환자·진료비 급증 현상은 기본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가 치매에 대한 관심이 커져 과거에 비해 초기 단계부터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매예방센터 교수는 "치매를 예방하려면 규칙적 운동, 금연 및 절주, 적극적 사회활동과 두뇌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캐나다 라발 대학, 퀘벡 대학병원,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SK) 제약회사의 공동연구진은 최근 알츠하이머 치매의 치료와 예방까지 가능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미국 사이언스 데일리와 캐나다 밴쿠버 선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연향뉴스

치매예방관리 10대 수칙

1.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여라. 손과 입은 가장 효율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장치이다.
2. 머리를 써라. 활발한 두뇌활동은 치매 발병과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호전시킨다.
3. 담배는 당신의 뇌도 태운다.
4. 과도한 음주는 당신의 뇌를 심킨다.
5.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뇌를 만든다.
6. 몸을 움직여야 뇌도 건강하다.
7.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자.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
8.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에 가자.
9. 치매에 걸리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10. 치매 치료·관리는 꾸준히 하자.

부동산 거래,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금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3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8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금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로시설 대지1026㎡ 건평2890㎡ 감정가29억 최저가20억
- ▷ 광산구 쌍림동 상업지역 3층근린시설 대지3238㎡ 건평3090㎡ 감정가72억 최저가20억
- ▷ 서구 쌍촌동 2중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80㎡ 건평198㎡ 감정가15억5천만 최저가13억8천만
- ▷ 영광읍 녹사리 7층근린시설 대지5111㎡ 건평3290㎡ 감정가25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 동구 내남동 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2억4천만
- ▷ 동구 산수동 2층단독주택 대지186㎡ 건평70㎡ 감정가2억 최저가1억4천만

공장 및 창고

-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 강진읍 송덕리 공장및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1억

토지 매매

- ▷ 화순읍 연양리 자연녹지 대지1121㎡ 감정가4.600만 최저가3.200만
- ▷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2천만
- ▷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금임대
양산동
6차선 도로변
3층 건물(영업중)
1층, 2층 식당
3층(가정집)
대형 주차장 완비
토지366평
건물207평
1층 92평
2층 72평
시설완벽!
권리금 없음
모든업종가능

010-3701-4767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치 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시설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를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3㎡당 35만원
자세한 문의를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공상, 창고, 전시장 등
매월동 서광주역 인근 2차순환도로 접 자연녹지 전 1,620㎡(493평) 매매가 당200만원 조정
개지동지관리시설, 전시장, 창고 등 투자적합
투자 및 다용도용 토지
고흥군 동강면 동강동 부근 벌교-고흥 4차선 교차로 코너 관리지역 임야 6,600㎡ 매가 1억 5천 (교통, 접근성 관리, 경사도 없음)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료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중양공인중개사
♣.병원건물 임대
*운암동 이파트 밀집지역 (금호,주공3단지,미라보,남양휴먼 우미 일신이파트 등 약 5,500세대) 병의원 개인 하실분 모십니다. (이비인후과 소아과 안과)
♣.대지,전답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 접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전원주택지
*담양군 대전면 평지리 한재골 입구 저수지 위 전망 아주 좋음 대지1,333㎡(9403평) 매매가 평당 65만원
총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 하신 분 상담 환영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